

자기에 측정도구(KISP) 구조모형 검증: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윤 정 혜[†]

하연상담교육연구소

본 연구는 자기심리학적 접근의 자기에 측정도구 한국어판(Korean Inventory of Self Psychology, 이하 KISP)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한 구조모형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ISP(1989)는 Slyter가 Kohut의 자기에 이중 축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예비조사에서는 번역과 역번역을 하고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후, 예비조사(n=891)와 본 조사(n=604)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4개 요인 - HGS, DGS, HIPI, DIPI - 이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4개의 경쟁 모형들을 제시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중에서 모형3에 해당하는 4요인의 3차원 위계 모형이 이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해 주는 측정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Slyter(1989)의 연구를 더욱 확증해 주었다. KISP의 요인구조는 자기에의 하위차원으로 과대자기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이 있으며 과대자기 축의 하위차원으로 건강한 측면과 방어적 측면이 있고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하위차원으로 건강한 측면과 방어적 측면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ISP가 상담과 임상에서 시사하는 바와 연구의 제한점,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기에, 건강한 과대자기, 방어적 과대자기,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

* 본 연구는 윤정혜의 2007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자기에 측정도구(ISP) 타당화 연구’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윤정혜, 하연상담교육연구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4-2 우창플라자 9층 904호
Tel : 010-9021-8227, E-mail : therapist1208@yahoo.co.kr

자기애는 상담에서 핵심적인 주제이고 이의 측정은 상담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Kohut은 자기애와 관련해 이론과 임상에서 독보적인 인물이다. 후기에 가서 모든 정신병리에 대해서 자기의 장애라고 보고 이론을 확장하면서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이라고 칭하였다. Kohut (1977)은 자기애가 정상적이며 성격발달의 중심적 경향이라 하였고, 자기의 발달을 자기애의 변형으로 보기도 하였다(Patton, Connor & Scott, 1982). 자기애적 구성물로서 Kohut은 과대자기(Grandiose Self)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Idealized Parent Imago) 축의 두 발달노선을 제안하여 자기애의 이중 축 이론을 내세웠다. 자기애는 두 노선을 따라 발달을 하거나 발달정지가 나타난다. 첫째, 과대자기에는 전능감(Omnipotence), 과시주의(exhibitionism)와 과대주의(grandiosity)가 포함되어 있다. 정상 발달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과대자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포부가 발달하며 이런 과대감은 자아 안에 통합 되어 자신감 있는 건강한 활동과 성공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Siegel, 1996). 과대자기는 행동조절, 자존감, 포부에 영향을 준다. 과대자기의 발달정지는 분열을 가져온다. 현실에 기초한 자기와 접촉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어 원시적인 과대자기는 현실적인 자존감으로 변형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영 받으려는 욕구와 자존감이 결핍된 특성을 보인다. 과대자기의 발달정지는 무기력, 공허감, 낮은 자존감, 막연한 우울감 내지 우울, 주도성 결여를 포함하는 심리적 황폐화가 발생하며, 발달이 정지된 과대주의는 자기애적 상처에 취약한 상태로 남는다. 둘째,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발달은 완벽한 타자와의 융합을 추구하는 환상을 담고 있다. 전능한 존재와의 융합은 만족, 강함, 온전감을

가져다준다.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은 무의식 속의 소망, 두려움의 복합체이며, 긴장조절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이상의 일부분이 된다. 즉, 자기가 두 축을 따라 발달 혹은 발달정지함에 따라, 과대자기 축에서 건강한 측면과 방어적 측면이 있고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에서 건강한 측면과 방어적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 요약컨대, Kohut의 자기애의 개념은 자기애의 방어적 차원과 건강한 차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며 과대자기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이라는 양축을 따라 대상사랑과는 별도의 노선으로 발달 혹은 발달정지 된다는 것이다.

측정학적 측면에서 Kohut의 자기애의 개념을 포괄적이고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측정하는 도구는 건강한 자기애에 대한 인식과 정상발달로서의 자기애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기제와 자기애의 발달정지로 인한 현상 및 기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상담현장에서 치료적 접근을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Slyter(1989)는 Kohut이 개념화한 자기애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The Inventory of Self Psychology; ISP)를 개발하였다. 이는 자기심리학의 이론과 치료과정 및 성과를 통해 나타난 자기애의 두 발달노선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문항들은 자기의 두 발달노선에서 각각 건강한 자기애와 방어적 자기애의 발현을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요인분석을 통해 네 차원의 척도에 각 15문항을 구성하였다.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n=94$)는 $r=.84-.87$ 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신뢰도를 살펴보면, HGS(Healthy Grandiose Self)는 $\alpha=.84$, DGS(Defensive Grandiose Self)는 $\alpha=.87$, HIPI(Healthy Idealized Parent Imago)는 $\alpha=.79$, DIPI

(Defensive Idealized Parent Imago)는 $\alpha=.82$ 를 나타내었다. Slyter(1989)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추출한 요인은 다섯 개의 요인이었으나, .50이상의 부하량을 가진 측정변수가 적어서 요인5는 제외시켰다. 162개의 예비문항을 통해서 60문항을 개발하였고, ISP가 네 개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 후 과대자기 축에서 보이는 수직분열(의식적 과대주의 10문항), 수평분열(억압된 과대주의 10문항)을 반영하여 방어적 과대자기를 개정하였으며 네 개의 하위척도 각각에 5개의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하여 최종 8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건강한 과대자기(HGS) 20문항, 방어적 과대자기(DGS/수직분열 10문항, DGS/수평분열 10문항)20문항,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20문항,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 20문항이었다. 하위척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HGS -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 반응적 활동, 자기-확신, 자기-즐거움. (b) DGS - 수평분열: 수치나 당황감으로서 나타나는 억압된 과대자기, 낮은 자존감, 작업저해. 수직분열: 우월성의 테마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대자기, 지배, 완벽성. (c) HIPI - 타인의 현실적인 자질에 대한 열성과 감탄, 자신의 내적 긴장을 진정시키는 능력, 생산성. (d) DIPI - 중요한 타인의 애정에 매이고 의지하려는 욕구, 지나치게 비평적인 특성, 불안한 흥분, 반동적인 격노, 중요한 타인이 떠났을 때 혹은 중요한 타인에게 실망했을 때의 우울.

위의 내용에 대한 출처로 Slyter(1989)는 수많은 서적과 아티클(Goldberg, 1980; Kohut, 1971, 1984; Ornstein, 1978a, 1978b; Patton et al., 1982)들을 참조하였고, 많은 문항들이 사례 연구들(Goldberg, 1978; Patton & Robbins, 1982)에서 심리치료의 성공적인 성과 뿐 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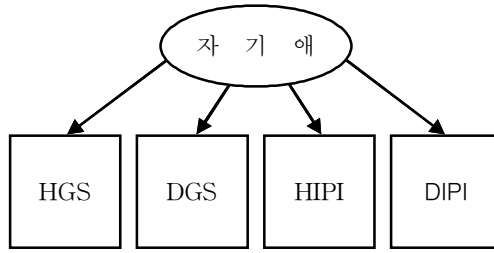
증상과 방어들에 대한 기술에서 도출하였다. Slyter(1989)는 우월성, 목표불안정성, NPI(Raskin & Hall, 1981), 사회적 바람직성과 학문적 태도 (SAT)와 ISP(Slyter, 1989)의 4가지 하위척도들의 관계의 유의성을 탐색함으로써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목표불안정성과 DGS, DIPI는 정적상관($r=.68, .68, p<.001$)을 보였으며, 목표불안정성은 HGS와는 부적상관($r=-.55, p<.001$)을 보였다. 자기에적 성격척도인 NPI(Raskin & Hall, 1981)는 이상화된 부모원상 척도보다는 과대자기축의 척도와 더 높은 상관($r=.39,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I(Raskin & Hall, 1981)와 HGS는 정적상관($r=.39$)을 나타내었고, NPI(Raskin & Hall, 1981)와 DGS와는 부적상관($r=-.21$)을 나타내었다. Slyter(1989)가 예측했던 것처럼, NPI(Raskin & Hall, 1981)는 HIPI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일반대학생과 내담자집단을 비교한 결과에서 일반대학생 집단이 건강한 자기에의 두 차원(HGS, HIPI)에서 내담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Slyter(1989)는 ISP에서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을 확인하면서 요인의 위계적 구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구인의 내적 구조는 평면모형이기보다는 조직화, 구조화 된 다(송인섭, 2005)는 근거에 따라 본 연구는 Kohut의 자기에의 이중 축 개념을 지지하는 Slyter(1989)의 ISP에 대해 어떠한 요인구조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쟁모형들을 그림 1에서 그림 4의 4가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경쟁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Kohut은 자기에가 대상사랑과는 다른 발달노선을 갖는다고 하였다. 둘째, 자기에는 두 축을 따라 발달한다고 하였다. 셋째, 자기에는 정상발달과 관련해 성격의 중

심경향이라고 하였는데 정상적 발달을 할 때 건강한 자기애로서 발현되며 발달정지가 되었을 때 방어적인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을 따라서 자기애는 3차원으로 상위 자기애가 하위 차원으로 과대자기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으로 나뉘며 양 축에서 건강한 발달을 할 경우와 발달정지가 일어날 경우의 두 가지의 하위 차원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자기애는 과대자기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축이 있으며 과대자기 축에서 정상발달을 하였을 때 건강한 과대자기가 발달하는 경우와 발달정지가 일어날 때 방어적인 형태의 과대자기가 나타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에서 정상발달을 하였을 때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나타날 경우와 발달정지가 일어날 때 방어적인 형태의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나타날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4개의 요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4개의 요인들이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구인의 내적 구조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여러 경쟁모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대자기의 발달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방어적 과대자기(DGS)는 수직분열과 수평분열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각각의 요인으로 묶일 가능성에 대해서 가정해 볼 수 있으므로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구조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쟁모형들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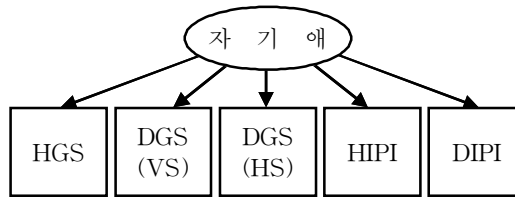
경쟁모형1(그림 1)은 4요인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모형으로서 Kohut의 자기애 이중 축에서 각각 건강한 내용과 방어적 내용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4요인이 나란히 평면적으로 병행하는 측정모형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즉 4개의 요인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동일한 위치로 병행하는 특성을 가진 측

정모형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경쟁모형2(그림 2)는 5요인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모형으로서 Slyter(1989)가 과대자기 안에서 수직분열과 수평분열로 나누어 방어적 과대자기의 측정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건강한 과대자기, 방어적 과대자기-수직분열, 방어적 과대자기-수평분열,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서 요인의 분화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애의 실제 측정에서 5개의 요인이 나란히 병행하면서 평면적인 구조를 가진 모형이 측정에서 실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경쟁모형3(그림 3)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서 Kohut의 이론에 근거하여 4요인으로 구성된 3차원 위계모형을 가정한 것이다. 가장 상위의 개념인 자기애가 하위 차원으로 과대자기의 축과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양측으로 발달하는 노선이 있으며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와 발달이 정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과대자기 축에서는 하위 차원으로 건강한 과대자기와 방어적 과대자기의 차원이 나뉘어질 것이며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에서는 하위 차원으로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과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으로 나뉘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모형을 본 연구의 측정모형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Kohut의 이론이 경험적으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실제 측정에서 자기애요인의 구조가 3차원의 위계구조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방어적 과대자기안에서 나뉘어지는 수직분열과 수평분열의 내용은 방어적 과대자기가 갖는 타인들에게 과대적이고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 받는 취약성을 보이는 모순된 현상에 대한 역동을 설명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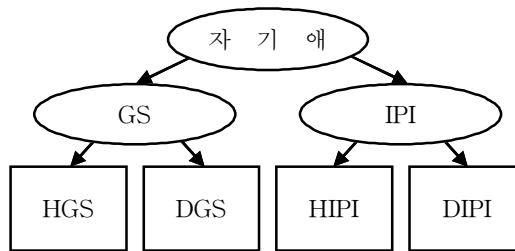
주. HGS=Healthy Grandiose Self, DGS=Defensive Grandiose Self, HIPI=Healthy Idealized Parent Imago, DIPI=Defensive Idealized Parent Imago.

그림 1. 측정모형 1 (4요인 2차원 평면모형)



주. VS=Vertical Split, HS=Horizontal Split

그림 2. 측정모형 2 (5요인 2차원 평면모형)



주. GS=Grandiose Self, IPI=Idealized Parent Imago

그림 3. 측정모형 3 (4요인 3차원 위계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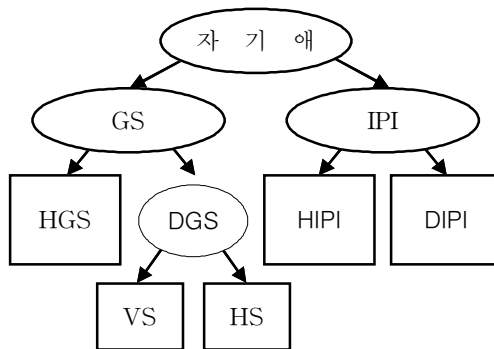


그림 4. 측정모형 4 (5요인 4차원 위계모형)

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는 과대적-과시적 욕구들이 표현될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욕구의 좌절이 낳는 유아적 과대주의를 보호하려는 방어를 대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시적인 과대주의가 현실적인 자존감으로 변형되지 못하는 역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Kohut은 자기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수직분열과 수평분열의 모습이 있다고 하였고 치료를 통해서 개인은 먼저 수직분열의 모습이 해소된 뒤에 수평분열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수직분열은 수평분열이 갖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Slyter(1989)가 방어적 과대자기 안에서 수평분열과 수직분열을 나뉘어 놓았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초기에 수직분열의 모습이 해소되기 전이라면 수직분열된 모습에서는 측정변수에서 수직분열과 수평분열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어적 과대자기의 수직분열 문항과 수평분열의 문항은 방어적 과대자기의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모형(그림 4)는 5요인 4차원 위계모형으로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구인의 내적 구조는 평면모형이기보다는 위계적 모형이며, 일반적인 고차원 특성은 특수한 내용으로 점차 분화되어 조직화, 구조화 된다고 논의(송인섭, 2005)되어 왔으므로 실제 측정이 4차원의 위계구조를 가지면서 요인도 5요인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방 법

연구대상

표집 1

예비조사를 위해 서울, 경기, 충청지역 소재의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043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동일문항을 추가하여 부주의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총 891명이었다. 남자는 278명(31.2%), 여자는 613명(68.8%)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63명(29.5%), 2학년이 217명(24.4%), 3학년이 175명(19.6%), 4학년이 232명(26%), 대학원생이 3명(0.3%)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204명(22.9%), 21세가 188명(21.1%), 22세가 118명(13.2%), 23세가 129명(14.5%), 24-26세가 202명(22.7%), 27-29세가 35명(3.9%), 30세 이상이 15명(1.7%)이었다.

표집 2

본 조사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지역 소재의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주의 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604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그 중 남자는 352명(58.3%), 여자는 252명(41.7%)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3명(17.1%), 2학년이 85명(14.1%), 3학년이 246명(40.7%), 4학년이 151명(25%), 대학원생 이상이 18명(3.0%)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90명(14.9%), 21세가 59명(9.8%), 22세가 98명(16.2%), 23세가 77명(12.7%), 24-26세가 205명(33.9%), 27-29세가 67명(11.1%), 30세 이상이 8명(1.3%)이었다.

측정도구

자기에 측정도구(ISP; Slyter, 1989)

Slyter(1989)는 Kohut(1971, 1977)의 이론적 접근에 따라 과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원상이라는 자기에의 두 발달 노선을 모두 포괄한 성격 구성요소의 다차원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였다. 자기의 두 가지 발달노선에서 각 각 건강한 자기애와 방어적 자기애의 발현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네 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a) 건강한 과대자기(the Healthy Grandiose Self; HGS) (b) 방어적 과대자기(the Defensive Grandiose Self; DGS) (c)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the Healthy Idealized Parent Imago; HIPI) (d)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the Defensive Idealized Parent Imago; DIPI). 신뢰도에서 각 각 HGS는 $\alpha=.84$, DGS는 $\alpha=.87$, HIPI는 $\alpha=.79$, DIPI는 $\alpha=.82$ 를 나타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6, .86, .84, .87$ 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 각 $\alpha=.89, .75, .84, .81$ 을 나타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92, .71, .91, .78$ 을 나타내었다.

KISP의 도구 변안 및 내용타당도 과정

첫 단계에서 본 연구자가 초역을 하였고, 둘째 단계에서 초역이 Kohut의 이론과 일맥상통하도록 Kohut이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직역된 것을 일부 수정하였다. 셋째 단계로 역번역을 하였다. 역번역자는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마쳤으며 고급반 영어회화강사를 하는 이중언어자였다. 넷째 단계에서는 ISP(1989)원문과 이중언어자에 의해서 역번역된 문장을 대조, 비교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약 12여년의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TESOL자격을 갖추고 영작문 강의를 하고 있는 이중언어자와 본 연구자의 협의로 수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역번역본과 원문장을 대조하여 동일한 의미인지 확인하였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내용타당도 확인을 했다. 교육심리학 전공 박사 학위소지자 1명, 상담전공 박사학위 및 한국 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을 소지하

고 상담전문기관에서 연구와 상담을 하고 있는 2명이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요인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고 그 문항들이 요인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평균점수 3점 미만의 문항은 누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문항은 평균 3점이상이었다. 이는 Slyter(1989)가 예비문항(162문항)을 통해서 개발된 문항(80문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단계에서는 수정, 완역된 문항을 실시하여 보았다. 대상은 연구 대상자 중의 최소연령에 해당하는 대학 1년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학년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문항의 의미가 잘 전달되고 이해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여섯 단계를 거쳐서 예비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80문항을 완성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SP(1989)는 5점 척도의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자는 점수가 중앙으로 집중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6점 리커트 척도의 평정으로 사용하였다. 6점은 전적으로 나와 같다, 5점은 매우 나와 같다, 4점은 다소 나와 같다, 3점은 다소 나와 같지 않다, 2점은 매우 나와 같지 않다, 1점은 전적으로 나와 같지 않다고 되어 있다

분석방법

ISP(Slyter, 1989)를 집단으로 실시한 예비조사(n=891)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72 문항을 추출하고 72문항으로 본 조사(n=604)를 통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61문항으로 축소되었다. 61문항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구조모형검증을 하였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 12.0 이었다.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varimax)을 하였다. 구조모형검증을 위해 4개의 경쟁모형을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이 어느 것인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Amos 프로그램 4.01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모형에 대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예비조사결과(탐색적 요인분석)

자기심리학적 접근의 자기에 측정 모든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ISP(1989)를 개발한 Slyter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다. 우선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여 반응편차가 심한 문항을 선별하였고, 하위척도별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을 검토하였다. 요인의 수에 대해서는 스크리도표와 누적분산퍼센트 기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각 요인의 일차원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유치, 요인부하량, 분산설명비율을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고유치가 1이상이고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을 적어도 3개 이상을 포함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추출요인의 수는 스크리도표를 통해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KISP가 4개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정된 문항은 8문항이 제외(31, 36, 41, 45, 52, 54, 62, 63)된 총 72문항이었다. 72문항에 대해서 본 연구의 표집을 통해 척도평균,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문항이 삭제된 경우의 척도평균을 살펴본 결과, 극단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모든 문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었다. 문항과 총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20이하인 3

개의 문항(15, 60, 56)을 제외하였다. 예비조사 후 72문항이었던 도구에서 위의 3개 문항을 누락시키고 양호도가 검증된 69개의 문항들로 본조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상호관계를 통한 단일요인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건강한 과대자기(HGS), 방어적 과대자기(DGS),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HIPI),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DIPI)의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5개 문항(78, 23, 8, 11, 7)을 제거하고 총 64개의 문항이 되었다. 각 요인의 문항 수는 HGS가 29개, DGS가 8개, HIPI가 6개, DIPI가 21개였다.

요인1의 29문항에는 Slyter(1989)의 요인1에 해당하는 20문항 중에서 4문항이 누락되었고 HIPI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9문항, DIPI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2문항, DGS에 해당하는 2문항이 함께 묶였다. 요인2의 8문항에는 Slyter(1989)의 요인2에 해당하는 20문항 중에서 15개의 문항이 누락되었고 HGS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2개가 포함되고 HIPI에 해당하는 문항이 1개가 함께 묶였다.

요인3의 6문항에는 Slyter(1989)의 요인3에 해당하는 20문항 중에서 15개의 문항이 누락되었고 DIPI에 해당하는 1문항이 함께 묶였다. 요인4의 21문항에는 Slyter(1989)의 요인4에 해당하는 20문항 중에서 7문항이 누락되었고 Slyter(1989)의 DGS요인에 해당하는 8문항이 함께 묶였다.

본 연구자가 위의 방법이 외에 여러 방법으로 요인의 추출을 시도해보면서 스크리도표와 누적분산퍼센트,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ISP(Slyter, 1989)에는 4개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위에 나온 결과대로 각 요인의 내용을 검

토해 볼 때, 요인1은 창조, 열정, 생산성,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 자기-즐거움, 자기-확신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요인2에서는 우월감과 낮은 자존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인3으로는 공감, 한계 수용, 타인에 대한 존중이 나타났고, 요인4에는 내적 공허감, 지나친 의존, 삶의 방향 부재, 공상, 낮은 긴장조절능력을 내용으로 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각 요인들은 Kohut이 말하는 자기에의 이중 축 이론이 있다는 것과 이에 건강한 차원과 건강하지 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lyter(1989)가 명명한 건강한 과대자기, 방어적 과대자기,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요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의 요인 중에서 방어적 과대자기와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요인에서 너무 많이 제거 되는 결과는 Kohut의 이론과 이를 지지하고 있는 Slyter(1989)의 측정의도가 많이 축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이 요인의 명명에는 Slyter(1989)와 일치할 수 있으나 4개 요인의 각 차원에서 문항수가 너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원연구자의 의도를 살려서 ISP문항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ISP(Slyter 1989)척도의 하위요인 HGS, DGS, HIPI, DIPI 차원을 나누어서 각각을 하나의 요인으로 하여 각 요인에 대해서 NF값을 1로 한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 Kohut은 자기가 이중 축으로 발달을 한다고 하였고, 이중 축에서 발달이 이루어질 경우의 현상들과 이중 축에서 발달이 정지되어 방어적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치

료 전후의 현상들을 통해 발견하였다. 둘째, 측정학적 측면에서 Slyter(1989)는 최초의 162문항을 통해서 80문항으로 ISP를 최종적으로 구성하면서 Kohut의 이론을 지지하는 4개의 요인을 발견하였다. 셋째, 본 연구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스크리도표, 누적분산 퍼센트,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KISP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이며 이 4개의 요인은 Kohut이 말한 현상과 Slyter(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하여 풍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측정변수의 최소한의 누락으로 양호도가 우수한 측정변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본 도구는 기존의 이론에 입각해서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각의 요인에 대하여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NF값을 1로 하여 요인을 회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4개의 각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양호함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송인섭, 1982) 이렇게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HGS에서 한 개의 문항(45번), DGS에서 5개의 문항(15, 14, 10, 64, 7번), HIPI에서 한 개의 문항(62번), DIPI에서 한 개가 문항(63번)이 누락되어 72문항을 추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하위척도별 최종문항의 내적일치도는 $\alpha=.68$ 에서 .89의 범위로 나타나 선정된 문항들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에 예비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예비조사 결과(n=891)

하위요인	문항수	.30미만	.30-.39	.40-.49	.50-.59	.60이상
요인1(HGS)	19			3	6	10
요인2(DGS)	15			5	5	5
요인3(HIPI)	19		4	5	5	5
요인4(DIP)I	19		4	5	7	3

본 조사 결과(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표 2는 본 조사 결과의 요인간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집2(n=604)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의 분석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애의 네 가지 차원에 대해서 각 차원에서 요인의 수를 1로 한정하여 NF 1값을 지정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면 양호하다는 기준에 따라 예비조사에서는 .30이하인 문항을 누락시키고 본 조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는 기준에 따라 .40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켰다. 예비연구를 통해서 추출된 72문항에서 본 조사를 하면서 제외된 문항들은 요인1에서 1문항(23), 요인2에서 4문항(13, 30, 31, 35), 요인3에서 3문항(34, 36, 57), 요인4에서 3문항(8, 55, 78)이었다. 각 척도에서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는 문항들은 각 척도의 단일성 요인을 잘 지지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각 하위 요인별 문항들이 비교적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KISP가 갖는 구조적 타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에 각 요인의 내용과 문항 수,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부

록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1에서는 원래의 20문항 중 에서 2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18문항이었다.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에 4문항(21, 17, 61, 33), 창조성에 3문항(3, 48, 44), 열정에 3문항(80, 73, 25), 자기-확신에 5문항(28, 24, 6, 38, 2), 자기-즐거움에 3문항(77, 65, 68)이 확인되었다. 요인2에서 원래의 20문항 중에서 9문항이 제외되어 총 11문항이었다. 방어적 과대자기의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수치나 당황감으로서 나타나는 억압된 과대자기, 낮은 자존감, 작업저해와 관련된 문항은 7문항(72, 18, 56, 47, 42, 46, 51)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월성의 테마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대자기, 지배, 완벽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4문항(9, 60, 22, 70)이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3에서는 원래의 20문항 중에서 4문항이 제외되어 총 16문항이었다. 타인의 현실적인 자질에 대한 열성과 감탄에 5문항(52, 40, 69, 1, 11), 공감에 3문항(27, 49, 12), 내적긴장조절능력에 4문항(53, 76, 26, 41), 이상발달에 4문항(75, 19, 58, 29)이었다. 요인4에서는 원래의 20문항 중에서 4문항이 제외되었고 총 16문항이었다. 중요한 타인의 애정에 매이고 의지하려는 욕구에 4문항(74, 50, 39, 32), 공허감에 4문항(37, 71, 67, 54), 삶의 방향 부재에 4문항(79, 16, 4, 5), 중요한 타인이 떠났을 때 혹은 중요한 타인에게

표 2. KISP의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 평균과 표준편차(n=604)

하위요인	HGS	DGS	HIPI	DIPI	평균(표준편차)
HGS	1				75.24(11.36)
DGS	-.13*	1			68.29(9.23)
HIPI	.78*	-.04	1		38.57(7.02)
DIPI	-.16*	.76*	-0.6	1	56.97(9.78)

표 3. KISP의 하위 요인과 내용 및 신뢰도

요 인	내 용	문항수	신뢰도계수 (n=604)	재검사신뢰도 (n=143)
HGS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 창조성, 열정, 자기-확신, 자기-즐거움.	18	.89	.92
DGS	수치나 당황감으로서 나타나는 억압된 과대자기, 낮은 자존감, 작업저해, 우월성의 테마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대자기, 지배, 완벽성	11	.75	.71
HIPI	타인의 현실적인 자질에 대한 열성과 감탄, 공감, 내적 긴장 조절 능력, 이상발달	16	.84	.91
DIPI	중요한 타인의 애정에 매이고 의지하려는 욕구, 공허감, 삶의 방향 부재, 중요한 타인이 떠났을 때 혹은 중요한 타인에게 실망했을 때의 우울	16	.81	.78
	합 계	61		

실망했을 때의 우울에 4문항(59, 43, 20, 66)으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KISP의 61문항은 최초로 64문항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문항 수에 있어서 유사한 정도를 보였고 각 요인에 대해서 비교적 균형감 있게 문항수가 분포되어 구성되었으며 Slyter(1989)가 각 요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과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각 요인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KISP의 61문항에 대해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서 보면 신뢰도는 $\alpha=.75$ 에서 .89범위로 나타났고 2-3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n=143)는 $r=.71$ 에서 .92 범위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구조모형 검증(확인적 요인분석)

KISP구인의 내적 구조모형에 대해서 경쟁적 측정모형을 4가지로 제시했다. 모형1은 4요인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모형, 모형2는 자기에의 분화가능성에 근거한 5요인으로 구성된 2차원 평면모형, 모형3은 본 연구의 측정모형

인 4요인에 근거하여 요인을 상정하는 3차원 위계모형, 모형4는 5요인에 근거한 4차원 위계모형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각 모형의 적합도 측정을 위한 통계적 지수로 χ^2 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유도(df)에 대한 χ^2 의 비율로(송인섭, 1998, 재인용; Bentler & Bonett, 1980; Schmitt, 1978; Wolffe, 1985)모형의 적합도지수를 제시하였다. Schmitt (1978)의 $\chi^2/df < 10$ 인 준거에 비추어 볼 때 구조모형으로 해석하는 데는 모든 모형에서 무리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모형3, 4가 더 적절한 모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mos검증을 통해서 보면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 TLI, CFI와 절대적합도 지수 RMSEA를 제시, 비교하여 경쟁모형들을 살펴보면 상대적합도지수로는 모든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9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모두 적합한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모형3이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 TLI, CFI에서 상대적으로 미소하나마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절대적합도지수 RMSEA는 0.1보다 큰 값을 가지는 모형1은 제외해야 할 것이며, RMSEA가 0.05에서 0.1 이하일 때 수용가능한 모델임을 감안할 때, RMSEA의 값이 가장 낮은 모형3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가장 적합한

지수는 TLI, RMSEA라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2004)는 근거에 따라 TLI가 .98로 모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RMSEA가 .05의 값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 적절한 양호도를 보여 준다는 기준에 따라 .08이하를 나타낸 3차원 위계모형의 모형3이 상대적 적합도 지수 NFI, TLI, CFI가 모두 .90이상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이하로 나타나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쟁 모형들 중에 모형3이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모형3이 KISP에 가장 잘 부합되는 최적의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즉 KISP는 4요인을 가진 3차원의 위계모형이다. 표 4는 경쟁모형들의 적합도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KISP의 구조모형은 모형3의 4요인 3차원 위계모형으로서 그림 5와 같다. 위계모형의 모수추정치에 의한 표준화계수를 보면, 3차원 자기애에 대한 2차원 요인들의 회귀계수는 과대자기 축이 1.04,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이 .62로 나타났다. 과대자기 축이 상대적으로 설명력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원에서 과대자기 축은 1차원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건강한 과대자기와 방어적 과대자기의 요인으로 분화되는데, 2차원의 과대자기 구인에 대한 건강한 과대자기의 회귀계수는 -.78을 나타내었고 방어적 과대자기의 회귀계수는 .63을

표 4.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n=604)

모형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모형 1	824.1	100	8.24	.97	.97	.97	.109
모형 2	1145.3	165	6.94	.97	.96	.97	.099
모형 3	487.8	102	4.78	.98	.98	.99	.079
모형 4	757.7	163	4.65	.98	.98	.98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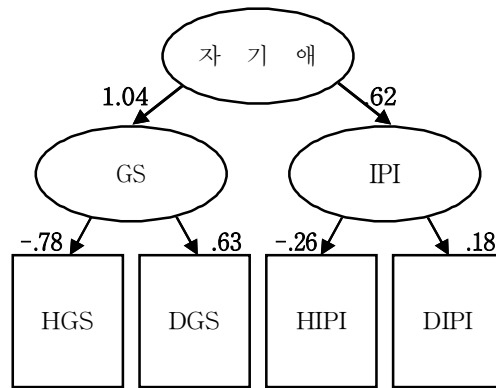


그림 5. KISP척도의 구조모형 회귀계수

주. GS=Grandiose Self, IPI=Idealized Parent Imago

나타냄으로써 과대자기의 구인에서는 방어적 과대자기요인보다 건강한 과대자기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차원에서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은 1차원에 해당하는 요인들로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과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요인으로 분화되는데,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요인의 회귀계수는 -.26으로 나타났고 방어적 이상화된 부모원상 요인의 회귀계수는 .18로 나타나

건강한 이상화된 부모원상 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변별 타당도 분석

KISP가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점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일반집단(n=49)은 본 검사를 위한 피험자 중(n=604)에서 무선으로 표집한 집단이었고, 임상집단(n=37)은 대학상담소에서 상담신청을 하고 상담을 시작하지

표 5. KISP 점수의 일반집단과 임상집단에서의 차이

ISP 하위요인	집단별	일반집단(n=49)	임상집단(n=37)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건강한자기애		159.84(12.14)	139.97(21.67)	4.90*
	HGS	84.02(7.56)	72.95(13.20)	5.19*
	HIPI	75.82(6.27)	67.03(9.41)	5.40*
방어적자기애		93.06(17.18)	105.57(15.79)	-3.26*
	DGS	37.61(7.67)	42.78(6.73)	-3.19*
	DIPI	55.45(10.88)	62.78(10.13)	-3.46*
ISP 전체		252.90(18.64)	245.549(24.36)	1.59

* p<.01

않은 사람들이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지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여 KISP 점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결과는 $p < .01$ 수준에서 KISP의 각 하위 차원인, HGS, HIPI, DGS, DIPI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KISP의 건강한 차원(HGS, HIPI)은 일반집단이 임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KISP의 방어적 차원(DGS, DIPI)은 임상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준편차에서 내담자집단이 다소 눈에 띄게 높았는데, 이는 내담자집단의 HGS, HIPI에서 이질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었다. 즉, 일반집단은 KISP의 건강한 차원에서는 내담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방어적 차원에서는 일반집단이 내담자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상집단은 KISP의 건강한 차원에서는 일반집단보다 낮게 나타났고 방어적 차원에서는 일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KISP는 임상집단과 일반집단을 변별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기애의 차원에 건강한 차원과 방어적 차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KISP가 임상집단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KISP의 신뢰도와 요인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KISP는 첫째, 신뢰도를 적절히 갖춘 도구로 검증되었다. 신뢰도는 HGS, HIPI, DGS, DIPI에서 각각 $\alpha = .89, .75, .84, .81$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KISP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92, .71, .91, .78$ 을 보

여주었다. Slyter(1989)의 2주 간격 재검사신뢰도 $r = .86, .86, .84, .87$ 보다 건강성 차원의 요인은 다소 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KISP는 4요인을 가진 3차원 위계구조모형이 최적의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Slyter(1989)는 ISP가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와 방어적 자기애의 두 요인으로 묶일지, 네 가지 요인들이 네 가지 하위적으로 병행이 되는지 혹은 네 가지 이상의 요인이 묶일지에 대한 명백한 가설을 세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쟁모형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KISP는 3차원 자기애에 대한 2차원 요인들의 회귀계수는 과대자기가 1.04,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62로 과대자기 요인이 자기애 구인에 대해 설명력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요인들에 대한 1차 요인들의 회귀계수는 .18에서 -.78로 나타났다. 과대자기 축에 대해서 설명력을 더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Slyter(1989)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Kohut이 말하는 자기애의 이중 축 이론을 지지 할 뿐 만 아니라 과대자기 축의 발달로 인한 현상과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발달로 인한 현상이 각 각 다른 요인으로서 설명되고, 과대자기 축의 발달정지로 인한 현상과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발달정지로 인한 현상이 각 각 다른 요인으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lyter(1989)의 연구를 지지할 뿐 만 아니라 더욱 명확히 해주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ISP는 Kohut이 말하는 자기 및 자기애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이론적 구인들의 개념화를 통해 개발되었다. 그 동안 종종 Kohut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자기애를 측정할 때는 NPI(Raskin & Hall, 1981)

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분명 이론과 측정에 대한 불일치인데, KISP가 타당화됨으로써 이론과 측정의 일관성을 가진 추후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자기에의 구인에는 건강한 차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ISP는 방어적 차원뿐 아니라 자기에의 건강한 차원의 특성으로 포함되는 폭 넓은 영역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한 자기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상발달로서의 자기에발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 방어적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은 수치나 당황감으로 나타나는 억압된 과대자기, 낮은 자존감, 작업을 저해함, 우울성의 테마로 나타나는 의식적 과대자기, 지배, 완벽성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건강한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DSM-III에 나와 있는 자기에적인 특성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향한 자기주장적 노력을 할 수 있고 창조성을 발휘하며, 열정과 자기-확신, 자기-즐거움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자질에 대해 감탄할 줄 알고 공감능력을 가지며, 내적 긴장을 조절하는 능력과 이상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Kohut(1966)이 자기에를 대상사랑과 비교한 선입견 때문에 자기에의 발달적 위치나 적응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 임상장면에서 자기에의 실제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축소시켰다라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반드시 건강한 자기에에 대해서 상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의 영역 중 어느 축에서 발달정지가 더 이루어 졌는지 확인을 통해 치료적 계획과 접근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심리학적 접근의 사례이해는 과대자기 축의 발달

정지로 인한 모습과 이상화 축의 발달정지로 인한 모습이 임상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Slyter(1989)는 과대자기 축과 더욱 관련 있는 정동으로서 분노를 말하였고,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과 관련된 정동으로서 우울을 말하고 있다. 이는 좀 더 연구를 통해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두 축의 발달 및 발달정지와 관련된 기제들에 대해서 좀 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자기심리학적 임상적 접근에 대해서 상담자들에게 Kohut이론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소개된 Kohut의 이론은 매우 제한적이고 축소된 것이었다. ‘자기에’하면 측정을 NPI(Raskin & Hall, 1979, 1981)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Kohut이론의 풍부함과 포괄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PI는 Kohut의 자기에 개념과는 다른 특성을 측정하고 있어서 Kohut이 말한 자기에에 대한 오해의 소지마저 있다. 이에 KISP는 Kohut의 이론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쉽게 해주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틀과 치료목표에 대한 준거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Kohut(1966)은 ‘자기에의 형태와 변형’에서 초기의 자기에가 성숙되면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KISP는 Kohut이 말한 자기에의 형태와 변형의 5가지 특성 - 창조성, 공감, 유한성의 수용, 유머, 지혜 - 모두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 및 적대감, 불안 등의 다른 정동

과의 관련연구가 추후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치심과 더욱 관련이 깊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치나 당황감이 과대자기,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과 경험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또 우울이나 격노가 과대자기,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과 경험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동과 과대자기, 이상화된 부모원상 축의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탐색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말한 정동 뿐 아니라 다른 기타 변인들이 자기에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추후의 연구는 모든 병리를 자기의 병리라고 생각한 Kohut이론에 대한 활용에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둘째, 상담에서 건강한 자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더 많은 호소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동기를 유발하거나, 개인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강한 자기에 대해 조명해 주는 강연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관심과 동기를 더 많이 갖도록 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셋째, 청소년연령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SP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에게 적용한 도구이다. 자기의 공고화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고 또한 그 이전의 증상이나 문제들이 드러나기 쉬운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연령에 해당하는 도구를 개발한다면, 건강한 자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방어적 차원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대처하며,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야 할 시기에 건강한 자기에 대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자기에 대한 발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과대자기축의 발달과 이상화된 부모원상축의 발달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기에의 두 가지 축이 잘 발달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개인들을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연구하거나 두 가지 축 중 하나 혹은 모두에서 심한 손상으로 취약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사례연구와 면담 등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 변인들을 탐색하거나, 질문지를 통한 탐색 등은 경험적으로 건강한 자기에와 방어적 자기에를 형성하는 기제와 변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곧 건강한 자기에 형성을 위해 부모를 돕거나 임상현장에서의 치료기술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선희 (2001).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영 (2001).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 (1998). 지능의 위계 구조 분석 연구. *교육심리연구*, 12(2), 219-268.
- 송인섭 (2005). 자아개념검사의 구인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p.75-96.
- 윤정혜 (2007). 자기에 측정도구(ISP) 타당화 연구 - Heinz Kohut의 자기심리학적 접근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정혜 (2008). 자기에 측정도구(ISP) 타당화 연

- 구. 한국학술정보(주).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재훈 역 (1999). 자기의 분석. 한국심리치료연구
 구소. Kohut, H.(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antional Universities Press.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최영안 (2002). 상담장면의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한국판 Millon 다축임상검사의 재표준화 기초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 워크샵 교재. Department of Eduactional Psycholog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홍세희 (2002).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4). 교육학 연구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한국교육평가학회 WORKSHOP 교재.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shby, H., Lee, R., & Duke, E.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behavior MMPI scale.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September.
- Bentler, P. M., & Bonett, D.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Crown,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4, 349-354.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Goldberg, A. (Ed.). (1978). *The psychology of self: A casebook*.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 He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In-Sub Song. (1982). *The dimensionality and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A thesis submitted in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of the University of the New England.
- Kohut, H. (1966). Forms and transform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4: 243-272.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84). *How does analysis cure?* (Ed) Arnold Goldberg, with the collaboration of Paul Stepansk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pan, R., & Patton, M. (1986). Self-psychology and the adolescent process: Measures of pseudoautomy and peer-group depend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136-142.
- Miller, A. (1981). *Prisoners of childhood*. (R. Ward, Trans.) New York: Basic Books.
- Miller, A. (1984). *Tbou sbalt not be awar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Miller, A. (1985). *For your own good*.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 Millon, T. (1982).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anual*(2nd ed.).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s.
- Morey, L. C., & Waugh, M. H. & Blashfield, R. 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245- 252.
- O'Brien, M. L. (1987). Examining the dimensionality of pathological narcissism: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O'Brien. multiphasic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61*, 499-510.
- Ornstein, P. (Ed.). (1978b). *The search for the self: Selected writings of Heinz Kohut, 1950-1979. The search for the self* (2).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2).
- Patton, M., Connor, G., & Scott, K. (1982). Kohut's psychology of the self: Theory and measure of counseling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68-282.
- Patton, M. J., & Robbins, S. B. (1982). Kohut's self-psychology as a model for college-student counseling. *Professional Psychology, 13*, 876-888.
- Phares, P. E., & Erskine, N. (1984). The measurement of selfis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4*, 597-608.
- Prifitera, A., & Ryan, J. J. (1984).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in a Psychiatric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140-142.
- Raskin, R. and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N., & Hall, C.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obbins, S. B. & Patton, M. J. (1985). Self psychology and career development: Construction of the superiority and goal Instabilit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Schmitt, N. (1978). Path analysis of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 157-173.

- Siegel, A. (1996).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Brunner.-Routledge
- Slyter, S. L. (1989). *Kohut's psychology of the self: Measures of healthy and defensive narcissism*.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Solomon, R. S. (1982). Validity of the MMPI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0*, 463-469.
- Wilson, J. P., & Prabucki, K. (1983). Psychosocial antecedent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syndrome. *Psychological Reports, 53*, 1231-1239.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olfe, L. M. (1985). Postsecondary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whites and black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2*, 501-525.
- Zamostny, K. P., Slyter, S. L. & Rios, P. (1993). Narcissistic injury and its relationship to early trauma, early resources,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501-510.
- 원 고 접 수 일 : 2008. 10. 15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 19
계 재 결 정 일 : 2009. 2. 9

**Study on Structural model of the Inventory
of Self Psychology(KISP):
An Approach to Heinz Kohut's Self Psychology**

Yoon, Jeong-Hye

HaYeon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iability and structural model of a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Self Psychology(KISP). Two samples of university undergraduates and graduates(n=891, n=604) participated in this study.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n=891)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n=604), 61 items were selected.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the healthy grandiose self(HGS), the defensive grandiose self(DGS), the healthy idealized parent imago(HIPI), and the defensive idealized parent imago(DIPI). Thus, after the structural model was examined, KISP was identified as a four factor, three 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This study supported and added to Slyter(1989).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Narcissism, Healthy Grandiose Self, Defensive Grandiose Self, Healthy Idealized Parent Imago, Defensive Idealized Parent Imago

부록. KISP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요인1 (18문항)	80.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71
	77.	나는 정말로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69
	73.	나는 나의 목표들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욕망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	.69
	48.	나는 나 자신이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본다.	.62
	3.	나는 보통 내가 선택한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62
	65.	나는 내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 상당한 기쁨을 얻는다.	.61
	28.	나는 특별하다.	.61
	21.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열심을 다해 추진한다.	.60
	24.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60
	17.	나는 창조적인 노력을 할 때 실망될 지라도 대체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59
	25.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57
	61.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갖는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보통 무언가를 끝까지 해낸다.	.57
	6.	나 자신의 욕구들과 감정들을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55
	38.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건, 거부당하건 간에 표현할 수 있다.	.54
	44.	나는 열정적이고 흥분될 때, 창조적인 뭔가를 한다.	.54
	2.	나는 내가 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요구할 수 있다.	.53
	33.	나는 현실적인 목표들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52
	68.	나는 나의 실패와 단점에 대한 실망감을 사용하여 나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5
요인2 (11문항)	46.	위축감을 느낀다.	.67
	47.	나는 때때로 자기-소외감과 공허감을 호소한다.	.63
	72.	사회적으로 큰 실수를 할 때 수치감을 느낀다.	.55
	18.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느낄 때, 나는 끔찍스런 수치심과 벌거벗었다는 고통스런 감정을 경험한다.	.54
	22.	나는 과대주의적("그림의 떡")환상을 가졌던 적이 있다.	.52
	56.	나는 칭찬을 받을 때 당황하는 경향이 있다.	.51
	51.	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51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47
	6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나타낸다. (즉, 멸시, 모멸)	.46
	42.	나의 자존감은 상당히 취약하다.	.45
	70.	나는 언젠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백일몽을 갖고 있다.	.44

부록. KISP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계속)

요인	문항번호	문항내용	요인 부하량	
요인 3 (16문항)	75.	나는 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경험한다.	.65	
	27.	나는 그럴만하다고 느낄 때 칭찬하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다.	.65	
	52.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고 싶다.	.59	
	19.	나의 흥미를 사로잡는 생각들에 대해 열정적이 될 수 있다.	.58	
	58.	나는 나 자신의 가치관을 발달시켰다.	.57	
	49.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다.	.57	
	40.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자질을 존경한다.	.57	
	29.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7	
	12.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나눌 때 그들을 따뜻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	.55	
	69.	나는 나의 친구들의 성취에 대해 열정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	.54	
	53.	나는 나 자신을 승인할 수 있다.	.52	
	1.	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좋아한다.	.50	
	76.	나는 나의 한계점들을 수용한다. (예,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50	
	26.	평온함을 느낀다.	.49	
	11.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 대해 열정적으로 기뻐한다.	.42	
	41.	화가 났을 때, 나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다.	.40	
	37.	공허한 내면을 느낀다.	.65	
	71.	때때로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갈망을 느낀다.	.61	
	59.	나는 중요한 관계들이 와해될 때 감정에 압도된다.	.58	
	43.	나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떠나갈 때 나는 철수하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57	
	79.	나는 나의 삶에서 방향감각을 잃고 있음을 알고 있다.	.56	
	39.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54	
	32.	완벽한 파트너 혹은 완벽한 친구에 대한 갈망이 포함된 환상들을 가지고 있다.	.51	
	요인 4 (16문항)	74.	나는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	.50
		50.	확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47
		16.	나는 추구할 만한 목표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	.45
		5.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해온 꼭두각시처럼 느낀다.	.45
		67.	피로감을 느낀다.	.44
20.		만약 내가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와의 관계를 위협할 것이다.	.43	
66.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는 비판적이 되거나 냉소적이 되는 것으로 반응한다.	.43	
4.		나는 목표지향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43	
54.	나는 때때로 졸업을 원치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42		